

##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8

### 여호수아 5장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여호수아 5장,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하기 8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을 살펴보고 이것으로 내가 땅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라고 부르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마칩니다.

6장은 실제 전투, 여리고 등에 관한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질문 중 하나는 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방금 언급했듯이, 나는 5장이 하나이고 앞 절의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모든 학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 절의 서론이라면 그 땅에서, 적어도 청각적으로는 가나안 족속과의 첫 만남이다.

그러나 실제로 2장부터 15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 가나안 왕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장 2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있고 여기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의식 준비라는 항목에 넣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백성의 할례인데, 이것은 오경에서 명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곳의 성지에 관해 여호와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책에 따라 일을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면,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극적인 사례를 봅니다(7장과 8장). 이제 5장에는 2절부터 9절까지가 있고 할례에 관해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말 그대로 이 수컷들이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절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처음으로 할례가 제정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을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2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3절에서 일어난 곳을 기벳 이라 부른다. 하롯. 그리고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다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포피의 언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슈아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이것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4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죽은 자나 나온 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길에서 난 자는 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5절).

그러므로 이것이 두 번째 할례를 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7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과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조슈아 파이프에 손가락을 대세요. 그러나 출애굽기 4장에서는 무대를 설정하기 위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발을 벗고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그 나라의 다음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애굽과 그 모든 곳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섯 가지의 이의를 제기하며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저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네 번째로 반대한 것은 그가 말이 느리고 혀가 느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형 아론을 네 대변인으로 삼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세는 이에 동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안정한 방식으로 지탱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는 이상한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몇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가의 어느 숙소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항상 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며 웃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그리워했나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생각하여 부싯돌을 집어 그의 포피를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ESV는 아들의 포피라고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 그의 포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 미안해요, 아들의 포피를 벗기고 발을 만졌습니다. 일부 버전에는 모세의 발이 추가됩니다. 즉, 십보라는 하나님의 공격이 어떤 형태였든 이에 대응하여 부싯돌 칼을 들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나에게 피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때에 그 여자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 신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의식이나 이런 일은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신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루 종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그의 아내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된 모세가 자신의 생애에도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주신 순종과 할례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이 한 가지 일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선, 저는 조슈아의 부싯돌 칼과 여기서 부싯돌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싯돌이 언급된 곳은 여기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여기서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이나 5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간신히 살아남은 모세가 마치 임사체험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기간 동안 할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40년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의 두 번째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이름에는 Gibeah Haralot, Hill of Foreskins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 굴러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Galal)인데 길갈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도 있어요. 여기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은, 애굽의 치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죄가 없어진 것이며, 애굽의 치욕이 이제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는 모압이 다른 나라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 심지어 그 4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그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멸망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의식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10~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진영에 있을 때에는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시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하고, 책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유월절 다음날인 그들이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관해 주신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며칠,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 땅에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을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던 만나와 그들이 처음으로 질리던 흰 것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중요한 상징적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를 신명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 관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장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쉐마(Shema)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어로 '듣다(HEAR)'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4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여기서는 10절과 11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앞을 내다보며 말하기를, 신명기 6장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아,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과 네가 파지 않은 웅덩이와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네게 주리라. 그리고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것이 풍부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는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냉전의 정점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나이다. 1980년대 초반 유럽, 소련, NATO, 연합국 등에서는 단거리 핵무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진지한 논의 중 하나는 중성자폭탄이라 불리는 핵폭탄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폭탄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과는 달랐다. 중성자폭탄은 건물을 파괴하지 못하는 폭탄이었다. 중성자와 방사선을 뿜어내고 사람을 죽였으나 도시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사 전략가들에 따르면 그것은 유럽과 같이 혼잡한 지역에서의 전쟁을 위한 완벽한 "완벽한 폭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물을 헐지 않을 땅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종의 아마도 불완전한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점령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책의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는 실제로 불에 탄 성읍이 세 군데밖에 없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아이이고 하솔은 하솔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신명기에 명시된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온전하고 집도 온전한 땅으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이주시키고 있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뭔가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동안 출애굽 날짜와 BC 1200년경에 일어났던 대파멸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섹션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조금 나중에. 원래는 여호수아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파괴는 거의 지중해 전체에 걸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아시아와 터키, 그리고 그리스 섬들과 이집트를 거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의 멸망에 대한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신명기 구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멸망시킨 흔적을 실제로 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가나안이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다른 불타버린 멸망의 층들이 실제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더 이른 시기, 즉 1400년경에 들어왔던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1200년경에 볼 수 있는 혼란은 제가 사사 시대라고 보는 것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는 그 자체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고고학적 증거와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수아의 날짜와 출애굽의 날짜에 대한 이전의 논의에 대한 각주일 뿐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의식 준비는 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물건을 가져오고 모든 것이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에는 새로운 내용인 13절부터 15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번째 의식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처음 두 가지와 같은 어떤 유형의 세 번째 의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 옆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조슈아입니다. 그는 그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손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슈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주요 관심은 13절 끝부분에서 묻는 질문, 즉 “너희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을 편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손에 검을 쥐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는 조슈아의 관심이 더 근시안적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보고 싶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14절, 아니요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제 내가 왔습니다. 이제 이 말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자기는 자기를 위하는 자라, 이 사령관은 여호수아와 백성을 위하는 자라고 말했어야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이상으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내가 당신 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편이 될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단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나의 기능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의 명령자라는 것을 안다면 네가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신용으로, 글썄, 그의 신용으로, 여호수아는 엎드려 그의 얼굴에 경배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은 그의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주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 있지 않은 성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소문자 'i'이고 히브리어로 '주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돈(Adon)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사에게 하는 말, 공손한 말의 한 형태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인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한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사용됩니다. 아돈은 소유자, 밭의 주인, 노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는 단지 조슈아가 이것이 신성한 인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것이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자기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주님의 군대 대장은 15절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한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 즉시 명백해집니다. 따라서 이 처음 다섯 장에는 출애굽기와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책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3장, 5장, 13절과 15절이 이 책의 다음 부분, 즉 여리고 전투와 이어지는 전투의 첫 부분이자 시작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사이에 큰 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여리고를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에피소드는 다른 의식 준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유월절이 있으며, 거룩함과 거룩함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에피소드가 두 개 있습니다. 의식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별개의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의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장에서 책임을 주셨고 우리는 라합으로부터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건너는 기적, 그것을 기념하는 일,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갈등에  
돌입하기 전에 의식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섹션이 끝나면  
중단됩니다.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여호수아 5장,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하기 8과입니다.